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 경희대 인문학 특성화 프로그램 -

이 선 이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대학 간 자율 경쟁을 통한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시행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우리 경희대학교는 ‘한국언어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과제로 사업 선정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에 우리대학은 인문학 지정과제 분야에 선정되어 향후 4년간 약 25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하였다. 이는 지원금 순위로 볼 때, 인문학 지정 과제 분야에서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정결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의 한국언어문화 관련 분야를 세계화하는 데 주안점이 되는 과제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한국대학 내부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론이 확산되고 일부에서는 인문학 무용론까지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인문학이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내적 비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동시에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자 고유한 우리의 언어와

문화,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보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과제로 대두 되었다. 이러한 비판과 요구는 새로운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내적 계기가 되었다. 우리 경희대학교는 그 간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인문학의 방향성을 찾아나가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우리대학이 선택한 이번 특성화 과제는 향후 한국 인문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은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I . 특성화 사업을 위한 노력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대학은 창학 이래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한 인류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해 왔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창학이념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가장 한국적인 것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나갔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의학인 한의학, 한국 전통무예인 태권도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 속에 전파하는 데 남다른 노력을 보여 왔다. 이를 위해 전 세계 230여 개의 대학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90년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여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주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집중하는 국내외의 수요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특성화해 나갈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우리대학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기반이 되는 외국어 능력의 함양을 위해 한국어학과를 타 대학들과 달리 외국어 대학 안에 설치하는 국제화의 의지를 보여 왔다.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여 한국적인 것의 세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교내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또한 외국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갔다. 우리대학은 이 분야의 기존 학과들이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이고 분과학문적인 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한국어-외국어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각국의 역사와 문화, 지역사정 등을 두루 배우는 문화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의 결과가 이번 특성화 사업의 선정으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II. 국제전문 인력양성

우리대학이 향후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행할 ‘한국언어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내국인 학생을 국제화시키는 방안이 그 하나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외국어 복수전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학생을 집중 육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계 주요 언어를 중심으로 여섯 개의 언어권에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이들 대학들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한다. 공동학위제는 우리대학에서 2년 동안 한국어전공과 타 외국어전공을 복수전공한 학생이 외국대학에 나가 2년 동안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두 대학의 학위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학생 파견에 있어서 두 대학 간의 상호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국외 대학에서 수학하게 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한 외국학생들을 이 분야의 국제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국외 인턴십, 해외 단기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언어문화 관련 국제적 교육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외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교과목을 새롭게 개발하여 국제적 안목과 우리말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인문교양 관련 과목 및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과목을 개발한다. 문화 간 차이를 경험하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사와 세계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하게

“

대학 간 자율 경쟁을 통한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자 시행하고 있는 대학특성화 사업에서 우리 경희대학교는 ‘한국언어문화 세계화를 위한 국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과제로 사업선정이 되었다. 우리대학이 선택한 이번 특성화 과제는 향후 한국 인문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은 물론이고, 세계화 시대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하는 일반교양과 계열교양과목이 집중적으로 개발 및 개설된다. 한국언어문화의 이해, 한국사와 세계사, 동양적 가치의 이해, 타문화의 이해 등의 교과목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타 언어와 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우리 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올바른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고자 한다. 또한 세계문화 디지털 자료실, 한국언어문화 자료실, 한국문화 체험관 등의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가며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외국인 학생을 한국 전문가로 키우는 방안(Pro-Korean program)이 다른 하나이다. 먼저 해외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에서의 원활한 외국인학생 수학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외

국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의 수학을 돕는 수업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외국학생을 위해 전용강좌를 개설하고 영어강의 개설 및 사이버강의 개설 등을 통해 수학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외국학생을 위해 외국인 전용기숙사, 외국학생 전용 학습실, 한국문화 체험관 등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 및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한국 전문가를 키우고자 한다.

특히 이 사업에서 주목할 점은 외국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외국학생 전용 강의를 개설하고, 이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사이버 강의를 동시에 제공한다. 또한 일대일 수업도우미를 통해 한국어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전용 학습실을 따로 설치하여 한국어 학습도우미를 제공할

“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은 국제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반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국가홍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매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한국어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한국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수학을 유도해 나간다. 이 밖에도 외국인 학생의 날, 외국어 카페 등을 개최하여 외국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축제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 전통문화 체험 실습, 한국 현대문화 체험 실습 등의 과목을 개설한다. 이 과목을 통해 외국학생들이 한국적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우리문화에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Ⅲ. 특성화 전제 조건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획기적인 장학금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내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 분야의 특성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

안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연구와 함께 학술대회 개최 및 집중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시민문화를 주제로 한 집중 워크숍과 인문교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한국어 관련 학술대회, 한국문화 관련 학술대회 등이 순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들 학술대회에서는 이 분야의 국내외 전문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연구의 현황과 세계화 방안 및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의 한국어교육 혹은 한국학 분야의 석학을 교환교수 제도를 활용하여 초빙하고, 국내 권위자와 팀티칭으로 수업을 하거나 하는 국제화된 강의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분야와 공학 분야가 학제 간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문화콘텐츠 개발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연구 분야의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인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Ⅳ. 특성화 사업의 의의

우리 경희대학교가 수주한 이번 사업의 의

미는 비단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자크 아탈리는 향후 50년이 지나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자신이 태어난 모국을 떠나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는 진정한 세계화의 방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는 우리의 사회제도와 인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나가는 방향, 즉 국제적인 수준을 한국화하는 수용(受容)의 방향이 있다면 우리의 고유한 것을 세계화하는 선양(宣揚)의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자국의 문화를 어떻게 세계화할 것인가 하는 후자의 방향은 국가 간의 치열한 문화경쟁의 장이 되면서 21세기적 화두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수행하는 사업은 국제사회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기반이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국가홍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바깥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와 한국전쟁, 군부통치하에서 경험한 갖가지 탄압상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압도적인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인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은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일본의 재일동포, 미국의 한인 등을 포함하여 700만이 넘는 재외동포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이들에게 모국의 언어와 문화는 영원한 향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체계적이고도 의미 있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러한 내용성이 확보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국제전문인력이 양성된다면 이들은 글로벌 시대에 우리 언어문화의 전도사가 될 것이 틀림없다.

얼마 전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주도해온 누리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사업능력 부재와 방만한 운영, 도덕적 해이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 공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비난과 비판을 채찍삼아 향후 4년 동안 우리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에서부터 사업평가까지 합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진행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진정한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는 신발끈을 다시 매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

이선이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만해시의 생명사상 연구』, 『생명과 서정』, 『상상의 열림과 떨림』,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등이 있으며 이외에 다수의 논문이 있다.